

# 다니엘서 - 제114번

마지막 세대: 에스겔 예언의 성취와 14만 4천의 인침을 밝히다

Jeff Pippenger

2024-03-03

2001년 9월 11일, 세 번째 화의 도래를 목격한 세대는 지구 역사상 마지막 세대이다. 이 진리를 입증하는 에스겔의 본문을 밀러주의자들은 열 처녀의 비유, 곧 하박국 2장과 직접 연결된 것으로 이해했다. 그 역사 속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하박국 2장의 묵시는 1844년 10월 22일에 성취되었으며, 미국에서 곧 시행될 일요일 법령을 예표했다. 그러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묵시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은, 2001년 9월 11일 세 번째 화의 도래와 함께 시작된 14만 4천의 인침의 역사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이르기를 '날들이 길어지고 모든 환상이 실패한다' 하는 그 속담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속담으로 쓰지 못하게 하리라. 오히려 그들에게 말하라. '날들이 가까이 왔고, 모든 환상의 성취가 가깝다.' 이스라엘 집 가운데 더 이상 헛된 환상도 아침하는 점술도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요,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리니, 패역한 집아, 너희 날에 내가 그 말씀을 하고 그것을 이루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보라,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은 오랜 날 후의 일이고, 그는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한다' 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 모든 말씀이 다시는 지체되지 아니하고, 내가 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에스겔 12:21-28.

모든 선지자들은 말세에 대해 말하며, "이스라엘의 집 안"에 있는 "헛된 환상"과 "아침하는 점술"은 가짜 "늦은 비", 곧 "평안과 안전"의 메시지인데, 그것은 "그가 보는 환상은 오랜 뒤에 있을 일이며, 그는 먼 때에 대해 예언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하박국의 "논쟁"이다. 왜냐하면 "헛된 환상"을 제시하는 자들이 "그가 보는 환상"을 반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가 보는 환상은 오랜 뒤에 있을 일이며, 그는 먼 때에 대해 예언한다"고 주장한다. "평안과 안전" 메시지의 사자들은 "때가 지연되고, 모든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그는 2020년 7월 18일을 예언하지 않았는가? "헛된 환상"의 사자들은 또한 이 장의 처음 두 절에서 에스겔에 의해 지목된다.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패역한 집 가운데 거하는도다. 그들에게는 보는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듣는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패역한 집이니라. 에스겔 12:1, 2.

모든 선지자들은 서로 일치하며, 모두 말세를 말한다. 그분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변론을 일삼던 유대인들을 상대하실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던 그들을 지목하시기 위해 이사야를 인용하시며, 볼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에스겔은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 진영의 조롱하는 자들, 곧 우리 시대의 트집 잡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늦은 비의

메시지에 반대하여 평안과 안전의 메시지를 주장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에 두신 원칙에 따라 행하셨으므로, 그분의 예언들도 그분이 당시 트집 잡는 유대인들을 상대하시던 때보다 마지막 날들을 더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은 그들이 감았으니, 혹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고쳐 줄까 함이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보므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들으므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를 원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마태복음 13:13-17.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현상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나쳐 가시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와 같은 예언적 현상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았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며 또 두 날개로는 날았다. 그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님이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였다.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하였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눈이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집게로 집어 든 타는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고 말하였다.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은 떠나갔고 네 죄는 깨끗케 되었다." 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가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분별하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무디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두렵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6:1-10.

하박국 2장의 성취 속에서, 늦은 비에 관한 참된 기별과 거짓 기별이 논쟁되는 마지막 때, 곧 늦은 비의 기간에 인침을 받고 있는 자들을 이사야와 에스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두 대표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이 성취되는 그때에 의인들은 비유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예언의 상징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늦은 비의 예언적 기별을 깨닫지만,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에스겔에 따르면 그들은 그 예언들의 성취가 아직 한참 먼 미래라고 주장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기별을 제시한다. 그들은 그 예언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시아에 대한 예언에 말로만 동의했지만, 단지 그 사건을 아주 먼 미래로 미루어 두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시대의 예언적 기별을 "보는"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셨다.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임하신 그분의 침례 때 도착한 기별이었다. 그분의 침례 때 성령의 강림은 1840년 8월 11일에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내려온 것을 예표했다. 두 역사에서의 신적 강림은 그 시대의 현진리의 기별이 도래했음을 표징했는데, 예수님께는 그것이 그분의 침례로 대표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기별이었다. 밀러주의자들에게는 정한 때의 예언이라는 시험하는 기별을 확증해 준, 이슬람과 관련된 첫째 화와 둘째 화의 기별이었다. 이 두 역사는 2001년 9월 11일에 늦은 비의 시험하는 기별이 도착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화이트 자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주어진 모든 기별은 지금 힘 있게 전해져야 한다. 이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기별들은 모든 교회에 전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Matthew 13:16, 17]. 1843년과 1844년에 보였던 것들을 본 눈들은 복이 있다.

그 메시지는 주어졌다. 때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메시지를 되풀이하는 데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사역은 완수되어야 한다. 짧은 시간 안에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곧 한 메시지가 주어져 큰 외침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때 다니엘이 자기 분깃에 서서 증거할 것이다.

우리 교회들의 주의를 일깨워야 한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문턱에 서 있으며,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권세를 잡고 그들을 계속 잠들게 해서는 안 된다. 교황권이 그 권세를 드러낼 것이다. 이제 모든 이가 깨어나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권능 가운데 그분의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 . .

"내게 이렇게 제시되었다—우리는 잠들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원고 출판물, 제21권, 436-438쪽.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드러난 메시아의 현대 진리 기별과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현대 진리 기별로 예표되어 온 그 기별은, 밀러주의자들의 기별이 반복되는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 역사 속에서 '보고 듣지 못하는' 자로 묘사된 이들은 '자기들에게 찾아오심의 때를 알지 못한다.' 이사야가 '보되 보지 못하는' 늦은 비의 위조된 기별의 사자들을 처음 언급할 때, 그는 이 기간이 시작되는 때를 표시하는데, 그 기간은 화잇 자매가 '큰 외침으로 부풀어 오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별'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은 그 기별이 임할 특정한 때를 가리키며, 이사야 6장 3절에서 이사야는 그 때를 정확히 지적한다.

서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3.

화이트 자매는 이사야가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하는 자들을 묘사하는 본문에서 천사들이 서로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칠 때가 2001년 9월 11일에

성취되었다고 밝힌다.

그들(천사들)은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미래를 바라볼 때, 승리의 찬양이 아름다운 선율로 서로 창화하며 울려 퍼지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온전히 만족하며, 그의 임재 앞에서, 그의 승인의 미소 아래에서, 그들은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 그의 형상을 지니고 그를 섬기며 예배함으로써, 그들의 가장 높은 포부는 온전히 이루어진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6년 12월 22일.

2001년 9월 11일에 14만 4천 명의 인침이 시작되었고,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열 처녀의 비유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하박국의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때 에스겔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었다. 예언의 말씀은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것이며, 2001년 9월 11일을 목격한 세대는 지구의 마지막 세대이다. 이는 재림주의의 끝에서의 환상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은혜의 시기가 끝남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찾을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32, 33.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세대를 식별하신다. 그는 방금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파괴에서부터 밀러주의 운동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역사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예언적 역사를 직접 특정하여 서술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자신이 제시한 예언적 역사를 단순히 반복하고 확대하는 한 비유를 들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같은 서사에 대한 두 가지 내부적 증거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들을 목격한 "세대"가 자신의 재림 때까지 살아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결론지었다. 따라서 문맥상 그 세대는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세대임을 지목하신 것이다.

십사만 사천인의 인침의 역사는 마지막 세대이며, 그들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때에 살면서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러나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은 맹렬한 열에 녹아 없어지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행위들도 불타 버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을 보니, 너희는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의 오심을 재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원소들이 맹렬한 열에 녹아 없어질 것이다. 베드로후서 3:10-12.

그리스도의 변모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표되었다.

변화산에서 모세는 죄와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대표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땅에 살아 있을 자들, 곧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자들, 그때에 '이 죽을 것이 불멸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자들을 대표하였다. 고린도전서 15:51-53. 예수께서는 '두 번째로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때 나타나실 모습대로 하늘의 빛으로 옷 입으셨다. 이는 그분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28; 마가복음 8:38.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 산에서 장차 올 영광의 나라가 축소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변화되어 하늘로 옮겨질 자들을 대표하였다. 시대의 소망, 421.

죽지 않은 엘리야는 죽지 않는 14만 4천을 상징하고, 모세는 죽는 자들을 상징한다. 말세에 그 두 부류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과 큰 무리로 묘사된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이 열릴 때, 암흑시대에 교황권에 의해 살해된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진다.

‘그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고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선포되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자기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6:9-11]. 여기서 요한에게 제시된 장면들은 현실의 사건이 아니라 장차 어느 시기에 있게 될 것들이었다. 원고 발췌집, 제20권, 197쪽.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해에 대한 원수를 언제 갚아 주실지를 묻고 있다. 순교자는 살해되기 전에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믿음의 나타남 때문에 교황권이 그를 죽이게 된 것이다.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지만, 살해된 이 영혼들에게 주어진 흰 옷은 그들의 순교 이후에 주어졌다. 그 옷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순교의 상징이다. 순교자는 살해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 요한계시록 7장의 큰 무리는 흰 옷을 받는데, 이는 다가올 일요일 법령의 유혈 사태 동안 죽는 자들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변화산에서 14만4천은 엘리야로, 주 안에서 죽는 충성된 자들은 모세로 대표된다.

십사만 사천은 죽지 않는 세대이며, 그들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천지가 없어질 때 살아 있을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아벨의 살해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사탄과 그의 수하들과 그리스도와 그의 따르는 자들—에 존재하게 될 적대의 첫 번째 사례였다. 사람의 죄로 인해 사탄은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그의 멍에를 벗어던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영혼이 죄의 섬김을 버릴 때마다 사탄의 분노가 타오른다. 아벨의 거룩한 삶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탄의 주장을 반박했다. 가인이 악한 자의 영에 움직여 아벨을 제어할 수 없음을 보았을 때, 그는 분노하여 그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하려 서는 이들이 있는 곳마다 동일한 영이 그들을 대적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 말뚝을 세우고 타오르는 장작더미에 불을 지핀 바로 그 영이다. 그러나 예수의 추종자에게 가해지는 잔혹함은, 그들을 자기들의 지배에 굴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선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패배한 원수의 분노이다. 예수의 모든

순교자는 승리자로 죽었다. 선지자는 말한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옛 뱀이라 불리는 마귀요 사탄] 이겼고, 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요한계시록 12:11, 9. Patriarchs and Prophets, 77.